

송실인의 역량과 진로탐색

윌리엄 베어드

(조원 이름순대로 적었습니다)

김재준 - 발표

김학건 -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 작성

남아리 - 자료 총정리 및 보고서 작성, PPT 제작

명성훈 - 자료정리

문준호 - 자료조사 및 정리, 보고서 작성

박경서 - 발표

1. 윌리엄 베어드는 누구인가

윌리엄 베어드(1862.6.16 ~ 1931.11.29)는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 학장이며 베어드의 한국식 이름은 배위량(裴偉良)이다. 1891년부터 1931년까지 40여년을 한국에서 활동했던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2. 윌리엄 베어드의 생애 및 업적

그는 1891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업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891-1896년에 부산과 대구에 선교지부를 설립하고, 한반도 남쪽의 선교를 담당한 것이다. 둘째는 1897-1915에 조선선교부의 교육정책인 “우리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평양에 숭실학당(1897)과 숭실대학(1906)을 세운 시기이다. 셋째(1916-1931)는 1916년에 ‘대학문제’(일제 105인 사건)로 숭실 교장직에서 물러난 후, 1931년 사망할 때까지의 활동이다. 그는 교장직에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주일학교 공과교재 번역 및 출판, 성경번역, 기독교 문서번역 등 문서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1931년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개교식에 참여한지 한 달 후에 장티푸스에 걸려 별세했다.

3.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이념

1896년 한국선교회는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어드를 교육자문으로 임명하고 그를 서울로 불러서 한국선교회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베어드는 당시 한국선교회가 고민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였다. 현실에서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선교회의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정책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베어드는 자신이 직접 서북지역을 둘러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와 선교회의 선교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1897년에 교육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 (1) 학교의 주요 정신은 유용한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하고, 따라서 현실 속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게 한다.
- (2) 학생들에게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 (3) 미션스쿨의 주목적은 현지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 속에서 기독교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있다.

베어드의 교육정책은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는 학교를 전도의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학교의 지위를 생각한 것이다. 또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4. 윌리엄 베어드와 송실대학교

그는 1897년 평양에 송실학당을 세웠다. 그 후 1906년에 송실학당을 대한제국으로부터 인가된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인 송실대학으로 발전시켰다. 교수진 부족, 열악한 재정, 그리고 시설 부족 등 매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고생한 이유는 일본의 세속적 고등교육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져다 줄 사악한 영향에 대항하는 교육제도를 만들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윌리엄 베어드는 1916년 대학문제(일제의 105인 조작 사건)로 교장직에서 사임하였다.

5. 윌리엄 베어드의 건축물

Ⅰ. 베어드 홀

베어드 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주로 수학과, 화학과 등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내부에는 각종 실험실, 교수 연구실, 대학본부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Ⅱ. 기념비

베어드 홀 앞에는 배위량의 기념비가 있다.



5. 참고문헌

- 위키백과 (윌리엄 M. 베어드)
-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선교에 대한 연구